

LDPE 내수가격 11월 또다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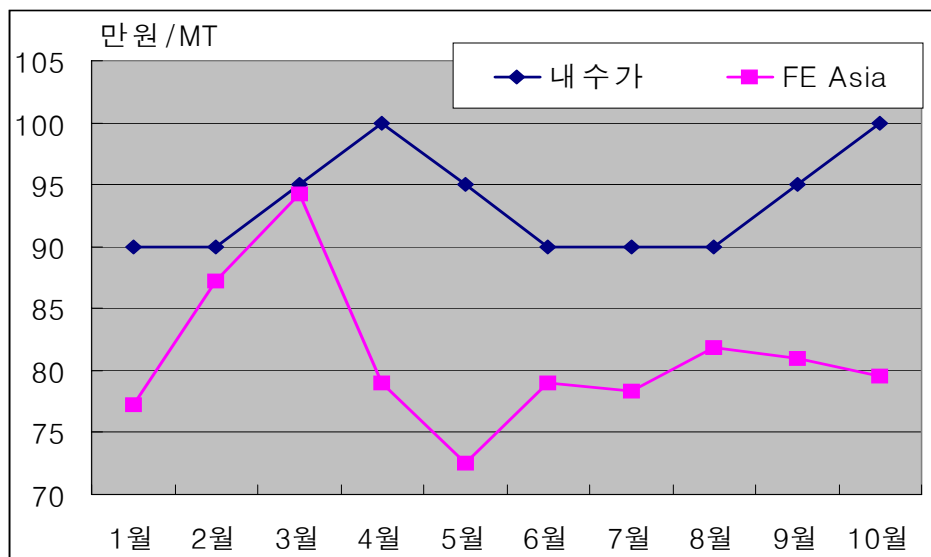
국제가격 상승 이유 5만원 인상 추진 ... 가격동결 가능성도 상당

국내 LDPE 생산기업들이 LDPE(Low-Density Polyethylene) Film 그레이드 가격을 톤당 5만원씩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11월에는 105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LDPE 생산기업 관계자는 “10월 LDPE Film 그레이드 가격은 5만원 인상해 톤당 100만원 선에 거래했으며, 10월부터 LDPE 국제가격과 원료인 Naptha 및 Oil 가격이 동반상승해 11월에도 톤당 5만원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LDPE의 10월 내수시장 평균가격이 92만-95만원으로 10월 중순 호남석유화학의 No.3 HDPE 플랜트 트러블에 따른 여파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으며, 11월부터 계절적으로 비수기 시즌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LDPE의 추가인상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LDPE 가격추이(2003)



LDPE는 국제거래가격은 11월7일 FE Asia 톤당 740-750달러에 거래돼 10월3일 650-660달러에 비해 무려 100달러 상승했다.

호남석유화학이 10월3일 공장가동을 중단한 이후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10월 극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거래가격이 상승해 LDPE 가격도 동반상승했는데, 11월에는 중국의 LDPE 수요가 증가해 극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LDPE 가격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의 Chandra Asri가 11월4일 트러블로 1주일간 연계돼 있던 2개의 PE 플랜트 가동을 중지했으며, Chandra 크래커에서 에틸렌을 공급받는 Peni도 2개의 PE 플랜트 중 하나의 가동을 중지했었다.

국내 LDPE 생산기업들은 대부분 가격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인상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1/18>